

36-204 to 36-207: 내적 정비와 확장에 대하여

 hdhstudy.com/1970/36-204-to-36-207-%eb%82%b4%ec%a0%81-%ec%a0%95%eb%b9%84%ec%99%80-%ed%99%95%ec%9e

내적 정비와 확장에 대하여
1970.12.01 (화), 한국 남산성지

36-204

내적 정비와 확장에 대하여

이제 이달 31일이면 이해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연초에 승리적 통일전선이라는 엄청난 표어를 세워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싸워 나왔습니다.

36-204

내적 정비와 확장이 문제되는 시점

이해가 1970년대의 기반을 닦고, 6천년 역사를 탕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었기에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교회 건립기금 문제를 비롯하여 1970년대를 중심삼고 여러 가지 준비할 과업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달 12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뜻을 중심삼고 볼 때 승리는 우리편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분야에서 지금 우리의 움직임을 증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더라도, 국내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가기준에서의 승공이념을 중심삼고 보더라도 이제는 어느 한계점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공로로 인해 어느 한계점까지 왔으나, 지금 문제되는 것은 내적인 정비와 확장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를 살펴보면, 1960년대는 우리 자체가 소모전을 한 연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크나큰 장벽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1960년대에 온갖 지성을 다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싸워 나왔기 때문에 1970년대에 와서는 이러한 장벽들이 어느 정도 무너져서 평지와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1970년대는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적인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뿌리를 공고히 하여 가지고, 이 민족과 세계 앞에 맡겨진 천적인 사명을 완결짓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 원리에 입각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도 재비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과정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비판하여 체계화해야 되겠습니다.

현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후의 승리를 다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재정비 문제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년에 있어서는 외적으로 활동을 하되, 극소수의 사람에 한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구들을 동원하여 활동하게 해서 최후의 어떤 한계선을 넘겨 놓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36-205

총동원하여 최후의 한계선을 넘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번 기간에는 축복받은 부인들이 총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이 기간은 지금까지 정성들이고 노력해 온 모든 것을 투입해서 최후의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이 10명을 1조로 편성하여 120곳의 전도임지로 출동하게 됩니다. 각 지구본부로부터 지역본부, 구역본부까지 출동해 가지고, 적어도 1972년까지는 우리 교회의 내적인 정예식구를 12만 이상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때 현재 있는 식구들이 한 달에 한 명씩만 전도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배이상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기성교회와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드시 중간 단체의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성교회와 교량역할을 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기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안팎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을 갖추어 가지고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 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단체를 끌고 나가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972년도까지 총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활동하는 부인들을 중심삼고 3, 4개월 동안 지역본부와 지구본부에서 적어도 120명 이상의 정회원 확보를 위해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청년과 남편들도 동원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1972년까지는 기성교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번 26일에서 28일까지 2박 3일 동안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목사 26명이 우리 원리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원용 목사는 초청을 해도 한 사람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초청에 응하겠다고 한 사람이 한 40명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추수감사절이 끼었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어 26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대한 기성교회의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장의 이름으로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젊은 목사들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대한 기성교회의 관심이 커졌다는 사실과 금후에 그들이 우리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 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시켜 그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연구회 활동을 어떻게 공고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는 뭐니뭐니해도 대학가를 중심한 활동을 중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일본 원리연구회 회장에게도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 2학년생을 회원으로 확보하여 내적으로는 원리이념을, 외적으로는 승공이념을 무장하게 한 후 그 이론을 중심삼고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을 어떻게 길러 주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켜 보고 강의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 반응을 보고 거듭 연습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불어 나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우리 체제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사회로 나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제일 순수한 것이 대학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3, 4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도 강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2년 동안 실력을 닦으면 대외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길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내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36-207

정성으로 일선의 활동을 지원하라

이런 것을 계기로 수택리에 신학대학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적인 정비를 공고화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게릴라 전법을 해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집중적인 전법을 써서 하나의 근거지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투 태세를 갖추고 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늘의 뜻이 있어서 책임을 지고 나가는 길이지만 여러분이 배후에서 정성을 들여 줌으로 말미암아 안팎으로 그 자세를 갖추는 데 총력을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후방에서 그들에게 지지 않도록 활동체제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이제 본부에서는 부흥단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 40일 지나면 결과를 대충 알 것이라고 봅니다. 40일 후면 부흥단을 편성해 가지고 각 도면 도를 중심삼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횡적으로 연락해서 그들이 평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알고 정성들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뜻은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 승리의 한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한 3년 동안 안팎으로 총단결해서 협조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

© 2013 - 2014 hhdstudy.com | [Contact Us](#)

- [RSS](#)